



드림랜드 · 조립학

Dream Land · assemblage

손원혁

Wonhyuk Son

차례 Contents

6	이동하고 조립하기 손원혁의 ‘조립추상’ 정해선 Movement and Assembly: Wonhyuk Son’s Assemble Abstract Haesun Chung
18	드림랜드: 색 Dream Land: Color
42	작가노트 Artist’s note
46	조립학: 구성하고 조합하기 assemblogy: compose and combine
68	작가 약력 Biography

이동하고 조립하기, 손원혁의 ‘조립추상’

정해선 (큐레이터)

“회화는 순수한 조형요소인 면과 색으로 온전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림 요소는 ‘그 자체’ 이외의 뜻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화는 ‘그 자체’ 이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¹⁾
- 구체미술 선언문 Concret Art Manifesto, by Theo van Doesburg (1930)

20세기 이후 줄곧 ‘회화의 죽음’이 선고되었지만, 회화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현대미술의 한 가운데서 작가들은 그림을 왜 그리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시대 현대미술에 있어, 회화의 기초 혹은 본질적 요소를 작업의 주제로 하는 작가는 극히 드물다. ‘회화의 조각적 변용’, ‘디지털 회화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회화 개념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회화를 발전시키는 작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구체미술(Concret Art)의 선언문처럼 회화의 순수한 조형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작품으로 구현해내는 작가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손원혁의 작업은 회화의 기본 조형요소로부터 출발한다. 점, 선, 면만을 가지고 구성해나가는 그의 작품세계는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

블록: 모든 구성의 시초

손원혁의 초기 작업은 레고로부터 시작된다. 7살 때부터 만지고 놀던 레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만 19세의 나이로 참가한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밀레니엄팔콘 기타>(2016)로 주목받기까지 그는 레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립(assemble)’의 속성에 주목했다. 과학에서도 결국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자’와,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가 조립되어 하나의 세상이 구성되듯이, 작가는 조립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레고의 최소 단위인 ‘블록’에 천착하여 작품을 제작해왔다.

1) Concrete Art Manifesto, 1930,
출처 <https://link.springer.com/content/pdf/bbm%3A978-1-4614-7052-6%2F1.pdf>, 202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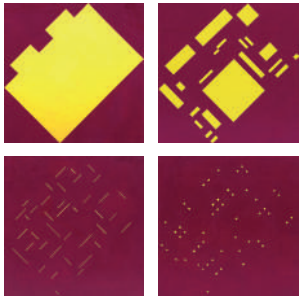


그림 1 <구성 1-4(분리-조합)>, 2020, 캔버스에 아크릴, 75x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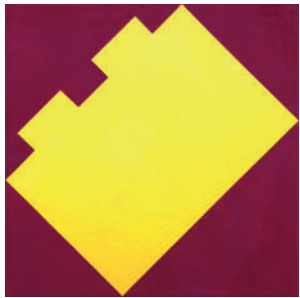


그림 2 <블록>, 2020, 캔버스에 아크릴, 35x35cm.



그림 3 <블록 설치미술>,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40x140cm.

2) 바실리 칸딘스키, 『점·선·면 Punkt und Linie zu Fläche』(1926), 차봉희 옮김(열화당, 1983), p. 25.

3) 바실리 칸딘스키(주 2), p. 105.

2016년부터 제작해온 <Dream Land> 시리즈는 작업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블록을 이용한 3차원 공간에서의 매체 실험이며, 2018년 이후부터 점차 2차원의 캔버스 공간으로 그의 조형언어가 이동하기 시작한다.

블록회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리듬

<구성 1-4(분리-조합)>(2020)은 회화의 기초 혹은 본질적 요소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점·선·면 Punkt und Linie zu Fläche』(1926) 이론에 영향을 받은 듯한 이 작품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칸딘스키가 말하는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point)’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점은 외적인 의미에서나 내적인 의미에서 회화의 원천적인 요소이며, 특히 그래픽의 원천적인 요소이다.²⁾ 그래픽 요소로서의 점을 작품(그림 1)의 가장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여 작업의 첫 단계로 선택한 것은 학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안그래픽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정체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작품(그림 1)의 왼쪽 하단을 보면 점을 모아 여러 가지 ‘선(line)’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은 점의 운동으로 생기는 운동에너지와도 같다. 이러한 동적인 선들이 만나 작품(그림 1)의 위쪽 상단에서 보여지는 ‘면(plane)’이 되고, 칸딘스키에 의하면 이 각각의 면은 작품의 내용을 담는 중요한 요소인 물질적인 면이 된다.³⁾

칸딘스키가 말하는 점, 선, 면의 모든 요소가 단계별로 축적되어 있는 <구성 1-4(분리-조합)>(2020)은 하나의 형태로서 <블록>(2020)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블록과 블록이 만나 묘한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블록 설치미술>(2020)로 집대성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회화적인 작품의 내용을 존재하게 하는 외적 형태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형태 속에 살아있는 힘들, 즉 내재적인 가치 혹은 정신적인 관계를 뜻한다. 각각의 관계들은 <블록 설치미술>(2020)에서처럼 힘의 균형 혹은 대립을 발생시키고, 비로소 이 긴장 관계는 모든 조형요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기발랄한 힘을 정확하게 법칙에 따라 조직화시키는 ‘컴포지션’으로 귀결된다.



그림 4 <뒤틀린 조화>, 2018, 캔버스에 레고 블록, 53x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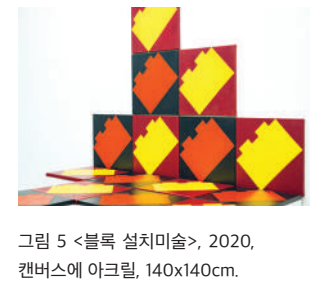


그림 5 <블록 설치미술>,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40x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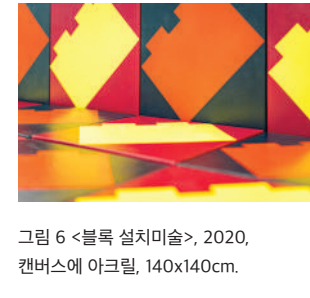


그림 6 <블록 설치미술>,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40x140cm.



그림 7 <조립추상>, 2021, 캔버스에 아크릴, 80.3x80.3cm.

그러므로 한 작품의 내용은 컴포지션에서, 다시 말해 필수적인 긴장들이 내적으로 조직되는 총체 속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손원혁의 블록회화는 회화적인 요소들이 만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리듬이며, 회화적인 목표아래 내적이고 함묵적적으로 종속 시켜 정리되는 하나의 울림이다. 작가의 다른 작품 <뒤틀린 조화>(2018) 또한 점, 선, 면이 모여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컴포지션으로 귀결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동하고 조립하기: 조립추상

이러한 점, 선, 면으로부터의 긴장 관계, 그로부터 탄생한 손원혁의 컴포지션 작품은 전시장 내에서 이동하고 조립되며 ‘이동식 회화’로 완성된다. 작가만의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식 회화는 시간성이 담긴 퍼포먼스적 성격의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동식 회화를 통해 각각의 개체를 해체하고 파편적 이미지를 재배치하여 대안적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는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이동식 회화의 구성이나 배치 형태는 달라지며, 여러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광명시민회관 개인전 《Dream Land: Colors》(2021.11.28.-11.30.)에서 <블록 설치미술>(2020)은 여타의 단체전에서 선보였던 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그림 5, 6)은 각개의 캔버스끼리 조립되고 이동되어 벽면 또는 바닥에 배치되었고, 이로써 이동식 회화에 담겨 있는 형태상의 변주를 보여주었다. 한편, <조립추상>(2021)(그림 7)은 작가가 임의로 선택한 32가지 색의 조화와 대비, 그리고 균형과 긴장의 평형상태가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색채에 대한 변주를 다룬 연작이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 길게 펼쳐진 형형색색의 블록 회화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내적 긴장감과 진한 울림을 호소한다. 이처럼 시간성과 수행성이 담긴 손원혁의 조립추상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동되고 조립될 것이며, 근미래에 마주할 상상적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형상의 소멸점을 향하여

결국, 손원혁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블록과, 점·선·면만을 가지고 작품세계를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어쩌면 소멸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점은 선과 면으로 이어지는 형상의 출발점인 동시에 형상을 지우고 지우다 보면 도달하는 형상의 소멸점과도 같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원초적인 기본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은 채 무한으로 수렴하는 현대 미술의 정신과 태도를 담지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손원혁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지의 지점에 도달하게 한다. 그 지점은 과연 형상의 출발점일까, 아니면 형상의 소멸점일까.

정해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및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백남준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현대카드 Brand기획4팀 큐레이터로 재직하고 있다. 《un-less》(2021) 전시를 공동 기획했으며,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평면을 벗어난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ovement and Assembly:
Wonhyuk Son’s Assemble Abstract

Haesun Chung (Curator)

The painting must be entirely built up with purely plastic elements, namely surfaces and colors. A pictorial element does not have any meaning beyond “itself;” as a consequence, a painting does not have any meaning other than “itself.”¹⁾

– Concret Art Manifesto, by Theo van Doesburg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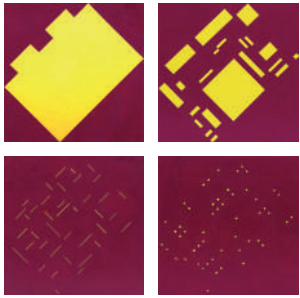
Even though proclamations of the “death of painting” have resounded since the 20th century, painting has defiantly persisted. Throughout the rapid evolution of contemporary art, artists continue to reflect upon and question their reasons for painting. Yet, it’s notably rare to find artists who, in today’s art scene, place the foundational or intrinsic qualities of painting at the forefront of their creations. While there’s a growing faction of artists who push the boundaries of painting with innovative concepts like “sculptural adaptations of painting” or a “shift to digital mediums,” those who truly delve into the pure, formative elements of painting—as echoed in the manifesto of Concrete Art—are few and far between.

Navigating through these contemporary currents, Wonhyuk Son’s works stem from these foundational elements of painting. Crafting a realm solely from points, lines, and planes, one can’t help but wonder: what sets his perspective apart in today’s artistic landscape?

The block: genesis of all composition

Son’s early works find their roots in LEGO. Beginning with childhood memories of playing with LEGO at the age of 7, he turned to this medium as a primary material. By age 19, he garnered attention at the Miami Art Fair with *Millennium Falcon Guitar* (2016).

1) Concrete Art Manifesto, 1930,
<https://link.springer.com/content/pdf/bbm%3A978-1-4614-7052-6%2F1.pdf>, 2021.12.5.



(Figure 1) <Composition 1-4 (Division—Unity)>, 2020, Acrylic on canvas, 75x75cm.



(Figure 2) <Block>, 2020, Acrylic on canvas, 35x35cm.



(Figure 3) <Block Installation Art>, 2020, Acrylic on canvas, 140x140cm.

2) Wassily Kandinsky, "Punkt und Linie zu Fläche"(1926), Translated by Bong-hee Cha(Youlhwadang, 1983),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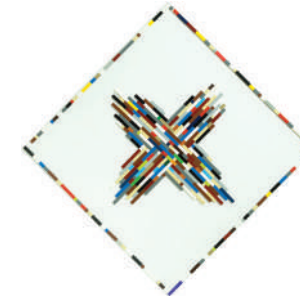
3) Wassily Kandinsky(note 2), p. 105.

Son was intrigued by the inherent attribute of “assembly” that LEGO possessed. Just as science illustrates the world being constructed from basic units called atoms and the molecules formed from their combinations, Son was drawn to the fundamental LEGO unit—the block. His painting series *Dream Land*, initiated in 2016, delves into experimenting within a three-dimensional space using these blocks. From 2018, Son’s artistic language began its shift to the two-dimensional realm of the canvas, indicating a broader exploration of artistic elements beyond mere blocks.

Block painting: a rhythm of contraction and expansion

The artwork *Composition 1-4 (Division—Unity)* (2020) signifies Son’s venture into the foundational or intrinsic elements of painting. Clearly influenced by the theory behind Kandinsky’s *Point and Line to Plane* (1926), this piece unfolds in three distinct stages. It starts with the “point,” which Kandinsky considered the fundamental element of design. This “point” holds significance in painting, both externally and internally, and notably stands as a crucial component in graphics.²⁾ The decision to position the graphic “point” at the bottom right of the artwork (Figure 1) mirrors Son’s academic and professional journey, punctuated by a major in Communication Design and an internship at Ahngraphics [a Korean publishing company specializing in design]. Proceeding to the bottom left of the artwork (Figure 1), a series of “lines” emerge, birthed from the congregation of these points, encapsulating the kinetic energy of their movement. These lines culminate into “planes” seen at the top, which according to Kandinsky, capture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artwork.³⁾

Composition 1-4 (Division—Unity) sequentially accumulates all the elements of point, line, and plane as described by Kandinsky and also exists in *Block* (2020) as a single form.



(Figure 4) <Twisted harmony>, 2018, Lego brick on canvas, 53x53cm.

It ultimately culminates in the intriguing and tense relationship portrayed in *Block Installation Art* (2020). The “tension” discussed here does not refer to the external forms making up the content of a painterly artwork, but to the inherent forces and values or spiritual connections alive within these forms. Such relationships, as exemplified in *Block Installation Art*, result in a balance or contrast of forces. Following set principles, this inherent tension is meticulously organized into what is understood as “composition.” Therefore, an artwork’s essence finds its expression within this comprehensive composition, where such crucial tensions are internally orchestrated. As a result, Son’s block painting emerges as a rhythm of contraction and expansion, crafted by painterly components. It resonates as an introspective and deliberate alignment, harmonizing with the broader objectives of painting. Son’s other piece, *Twisted Harmony* (2018), also serves as a portrayal where points, lines, and planes converge, crafting an imperceptible relationship of tension and ultimately, the composition.

Movement and assembly: assemble abstract

The tension derived from the points, lines, and planes, and Son’s subsequent compositions, find their culmination in the exhibition hall, evolving and assembling into “mobile painting.” This mobile painting, a distinctive feature unique to the artist, embodies a performance-rich essence characterized by its temporality. In mobile painting, individual entities undergo deconstruction and fragmented images find new arrangements, crafting an alternative narrative. Depending on the time, place, and environment of the artwork’s installation, the composition or arrangement of the mobile painting can change, embodying an endless possibility of variations.



(Figure 5) <Block Installation Art>, 2020, Acrylic on canvas, 140x140cm.



(Figure 6) <Block Installation Art>, 2020, Acrylic on canvas, 140x140cm.



(Figure 7) <Assemble Abstract>, 2021, Acrylic on canvas, 80.3x80.3cm.

At the solo exhibition *Dream Land: Colors* (2021, Gwangmyeong Civic Center), the *Block Installation Art* showcased a completely different arrangement than what was previously displayed in other group exhibitions. This artwork (Figures 5 & 6) demonstrated how individual canvases were assembled and relocated on walls or floors, thereby demonstrating the variations inherent in mobile painting. On the other hand, the piece *Assemble Abstract* (2021) (Figure 7) distinctly manifests the harmony, contrast, and equilibrium of tension and balance present in the artist's chosen 32 colors. It's part of a series that delves into variations in color. The vibrant array of block paintings, displayed lengthwise on one side of the exhibition hall, resonates deeply, invoking inner tension in the viewers. Embodying temporality and performative characteristics, Son's assemble abstract will continue to move and assemble in diverse forms, progressing toward an imaginative future that awaits in the near horizon.

Toward the vanishing point of form

The core of Wonhyuk Son's artistic universe has been built using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blocks, points, lines, and planes. However, this entire creative journey may be racing towards an elusive vanishing point. A singular point can be both the inception of form, as it extends into lines and planes, and the very end of form, when one erases continuously until nothing remains. It can be seen as the primal essence of an object, reflecting a spirit and stance of contemporary art that converges infinitely without discernible beginnings or endings. Ultimately, Son's works transport us to an unknown point. The question remains: is it the birthplace of form or its final dissolution?

Haesun Chung

She gradua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with degre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rt History and obtained master's degree in Art Manageme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rting in 2013 with the Nam June Paik Cultural Foundation, she worked for over 10 years at the Seoul Museum of Art, the Ilmin Museum of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urrently, she works as a curator in Brand Planning Team 4 at Hyundai Card. She co-curated the exhibition *un-less* in 2021 and maintains a research focus on diverse media beyond flatness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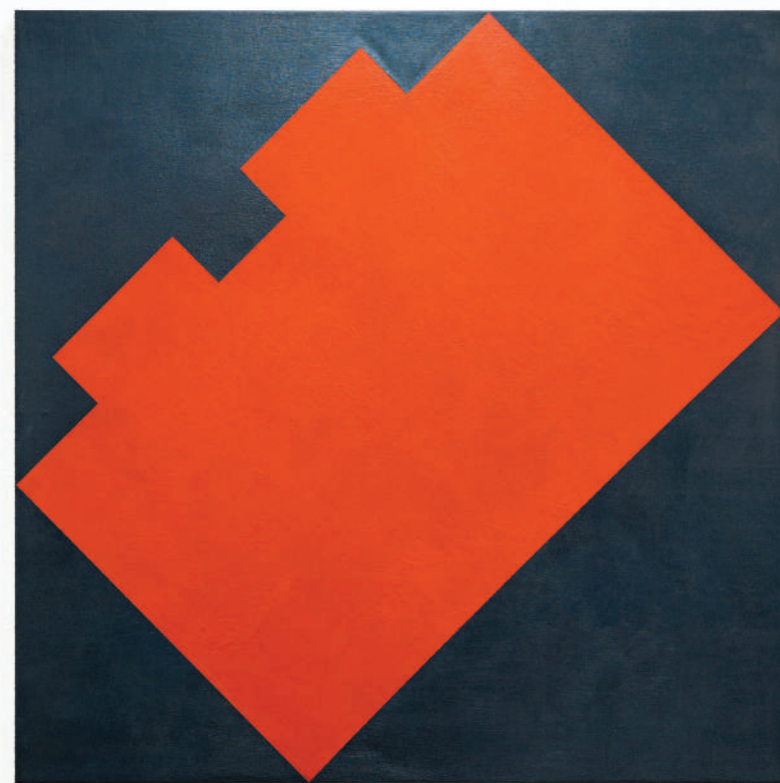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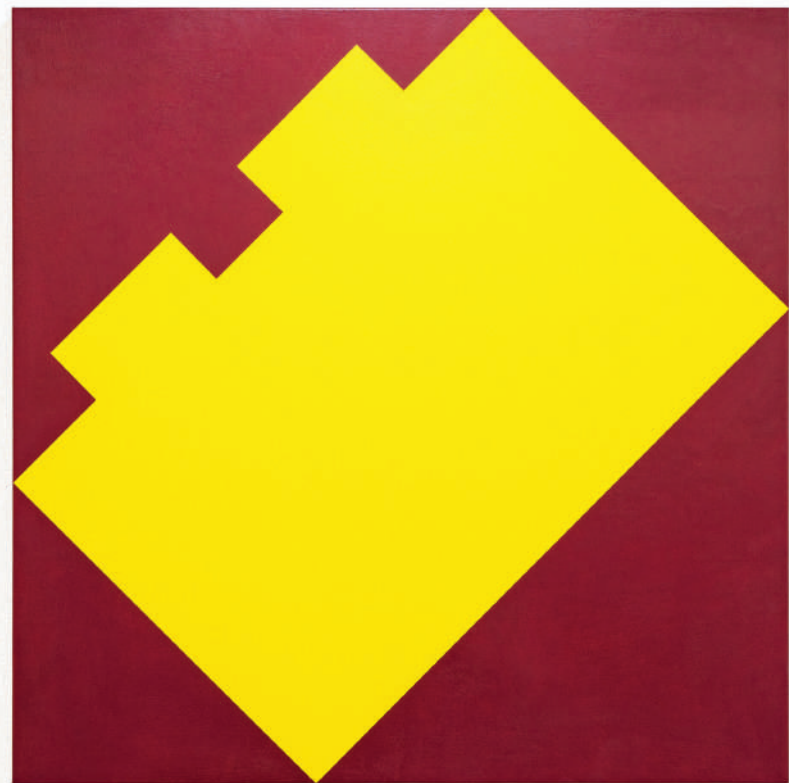


순환 (레고 부처), 2021, 캔버스에 실크스크린, TV, 레고 블록, 가변크기 (430x400x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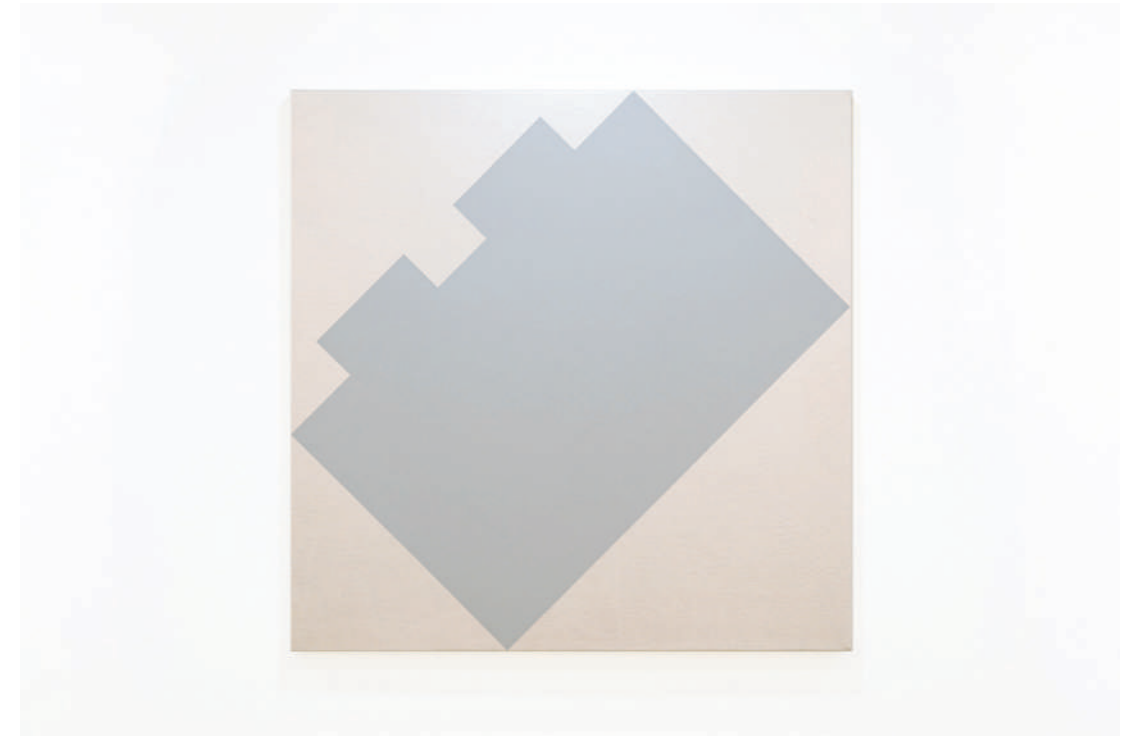
Cycle (Lego Buddha), 2021, Mixed media (Silkscreen on canvas, TV, lego brick), Dimensions variable (430x400x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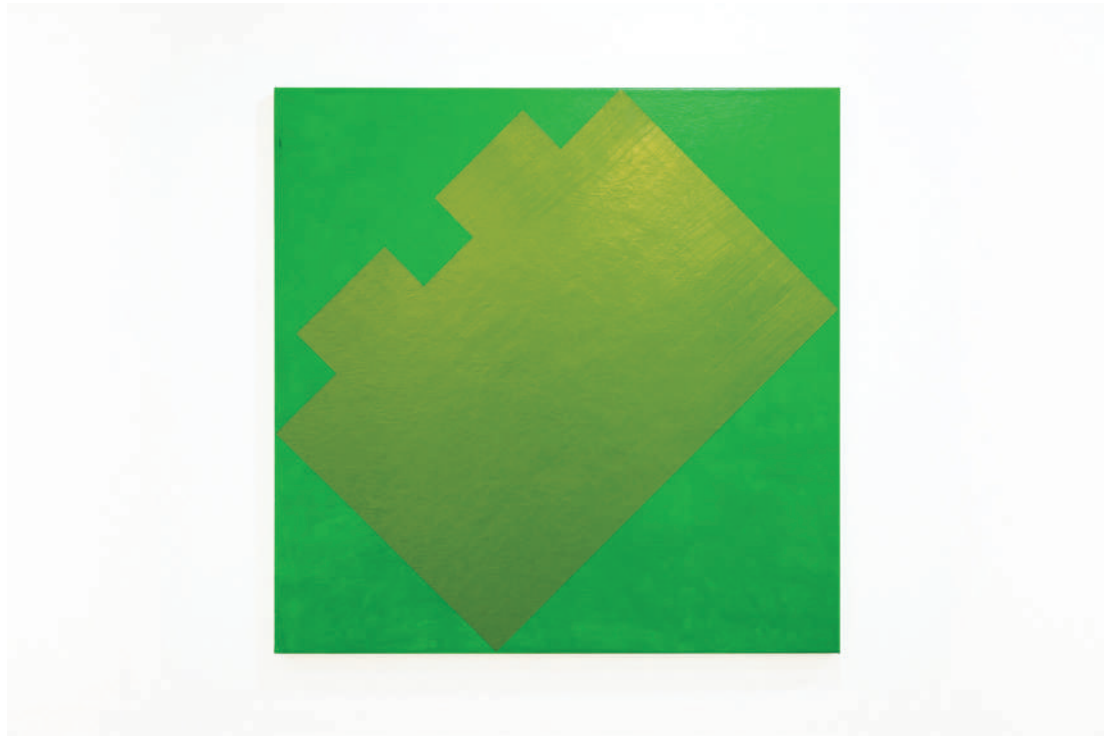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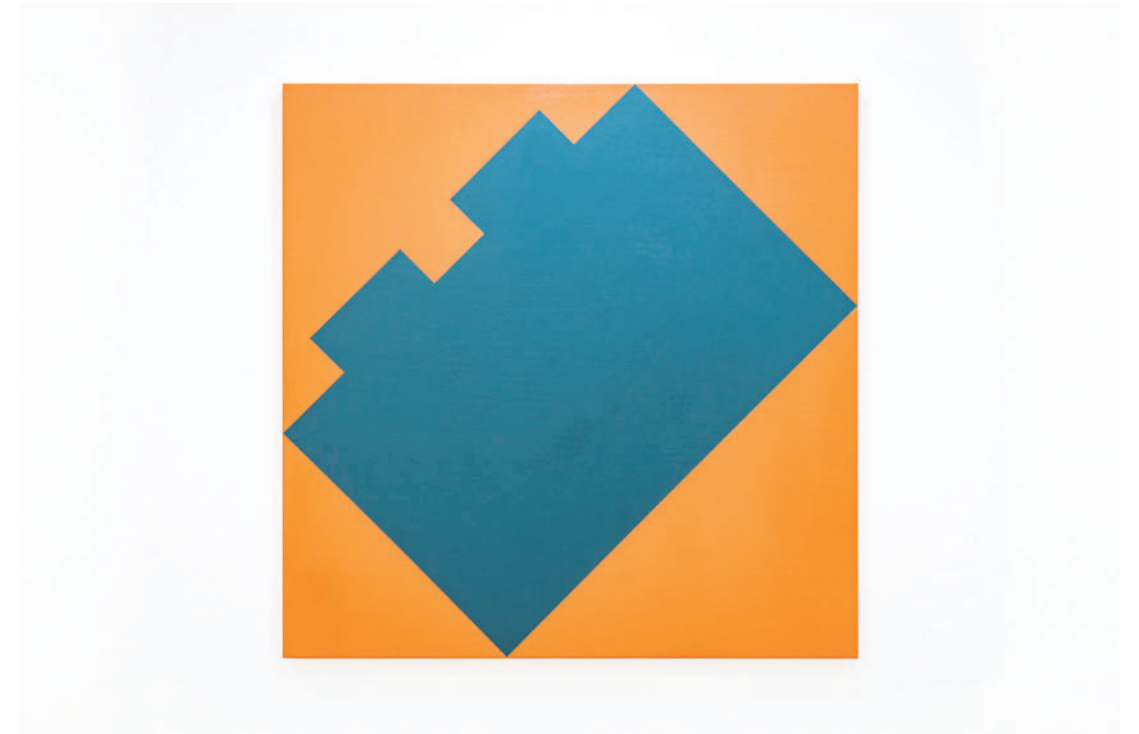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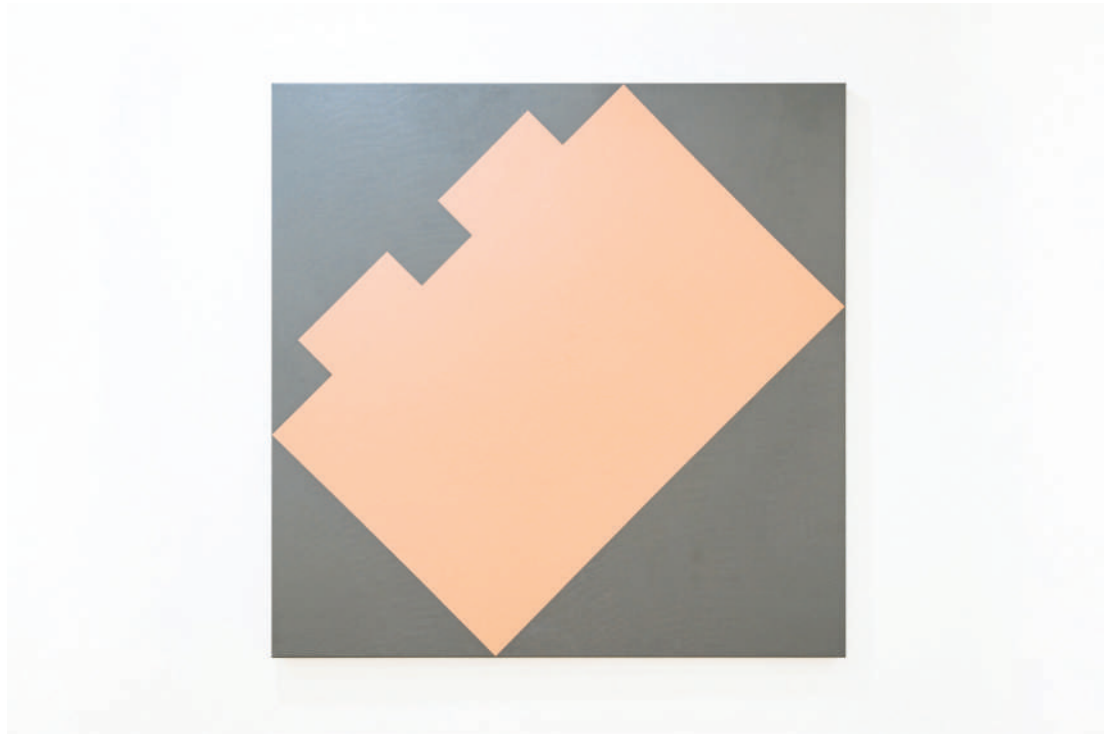
조립 추상, 2021, 캔버스에 아크릴, 80.3x80.3 cm (16개)
Assemble Abstract, 2021, Acrylic on canvas, 80.3x80.3cm (16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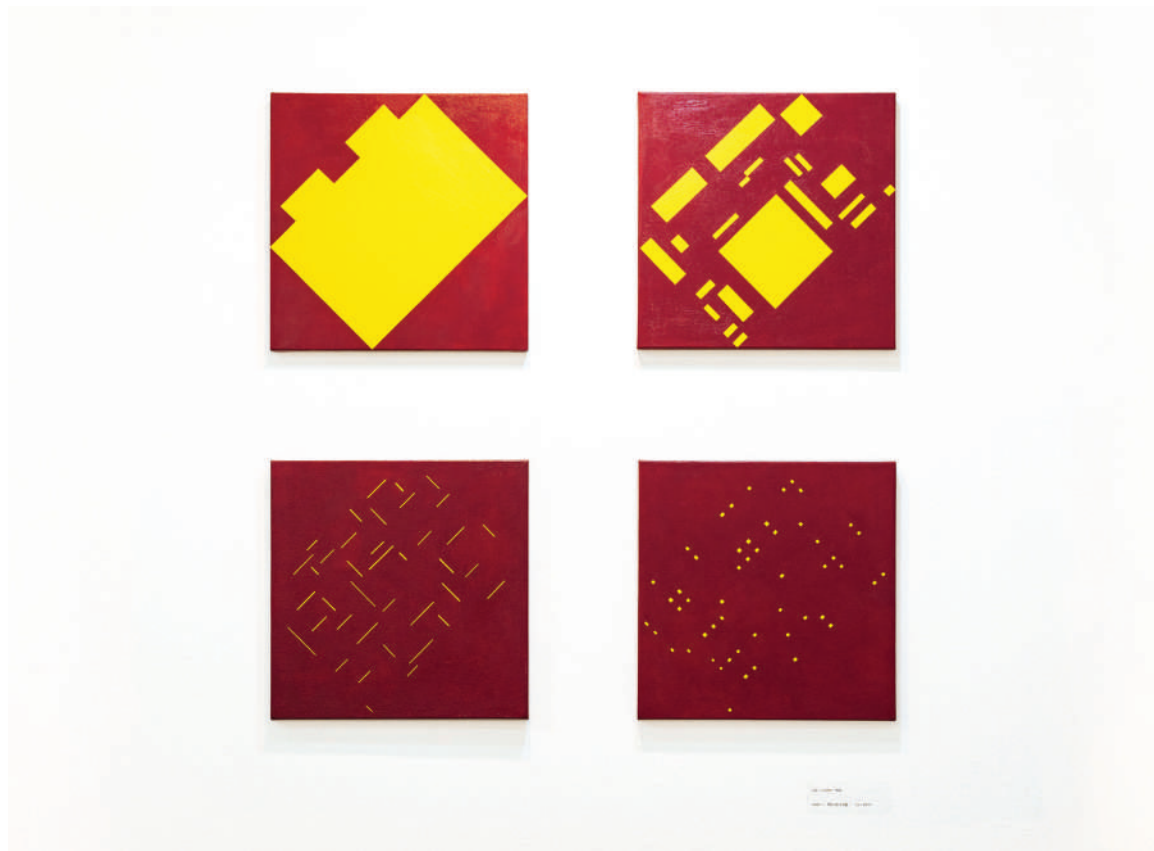






블록, 2020-2021, 캔버스에 아크릴, 35x35cm (16개)
Block, 2020-2021, Acrylic on canvas, 35x35cm (16ea)





구성 1-4 (분리-조합), 2020, 아크릴에 캔버스, 35x35cm
Composition 1-4 (Division-Unity), 2020, Acrylic on canvas, 35x35cm



뒤틀린 조화, 2018, 캔버스에 레고 블록, 53x53cm
Twisted harmony, 2018, Lego brick on canvas, 53x53cm



꿈추, 2020, 레고 블록, 22.7x3x42.5cm

Hunchback, 2020, Lego brick, 22.7x3x42.5cm



오페라의 몰락, 2019, 레고 블록, 41x24x94cm
The fall of opera, 2019, Lego brick, 41x24x94cm



작가노트

모든 형체는 시작도 끝도 없다
조립되고 해체되며
블럭과 블럭이 조립되듯
활자와 활자가 조립되듯
픽셀과 픽셀이 조립되듯
소리와 소리가 조립되듯
사람과 사람이 조립되듯
문화와 문화가 조립되듯
시간과 시간이 조립되듯
원자와 원자가 조립되듯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고
면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고
음은 점이 된다

블럭은 한 조각으로부터
무한한 형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블럭이 블럭과 조립될 수 있고
블럭이 캔버스에서 조립될 수 있고
캔버스가 블럭이 되어 공간에서 조립될 수 있고
블럭은 상상에서 조립될 수 있고
상상은 코스모스에서 조립될 수 있다

Artist's note

Every form has neither a beginning nor an end.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just as blocks connect,

as letters unite,

as pixels merge,

as sounds harmonize,

as people come together,

as cultures intertwine,

as moments in time converge,

as atoms bond.

A point evolves into a line,

a line unfolds into a plane,

a plane expands to volume,

volume dissipates into the void,

and the void circles back to a point.

Blocks harbor infinite potential from a mere fragment;

they can assemble with other blocks,

they can merge upon a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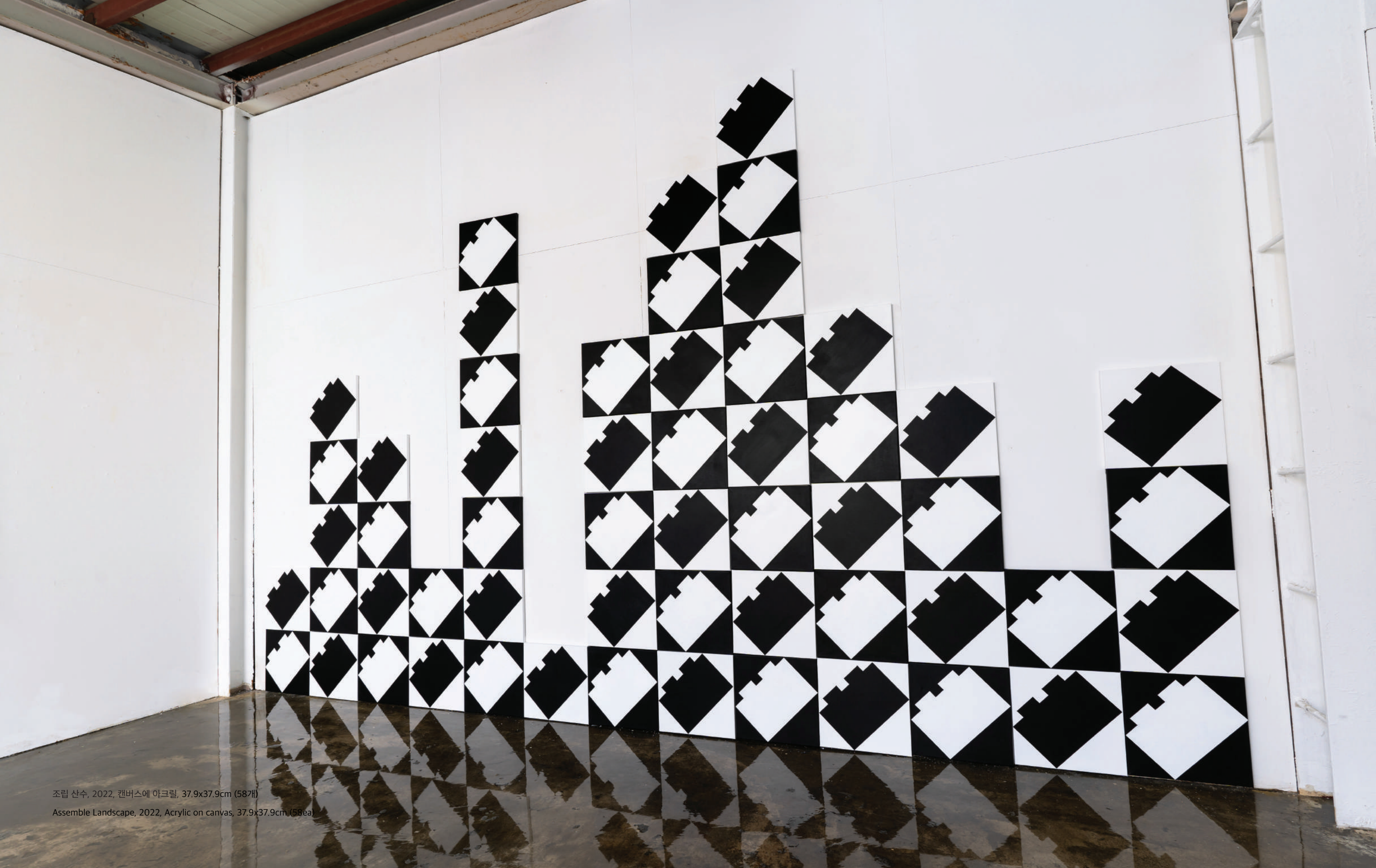
the canvas can transform into a block, uniting within space.

Blocks can construct in the realm of imagination,

and imaginations can come together in the vast cosmos.







조립 산수, 2022, 캔버스에 아크릴, 37.9x37.9cm (58개)
Assemble Landscape, 2022, Acrylic on canvas, 37.9x37.9cm (58ea)



구성 1-6 (분리-조합), 2020-2022, 아크릴에 캔버스, 캔버스에 채색된 레고, 35x35cm

Composition 1-6 (Division-Unity), 2020-2022, Acrylic on canvas, colored lego brick on canvas, 35x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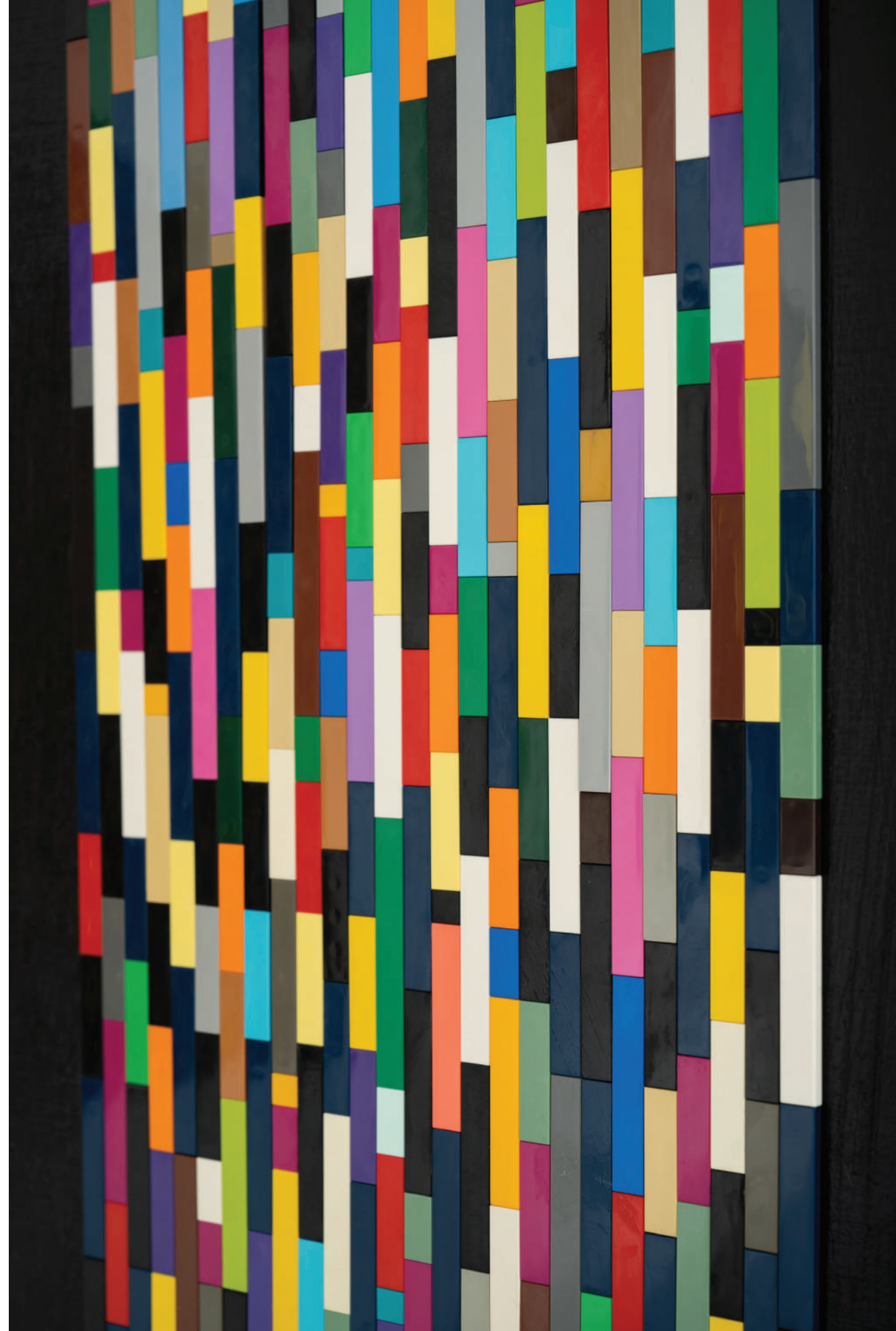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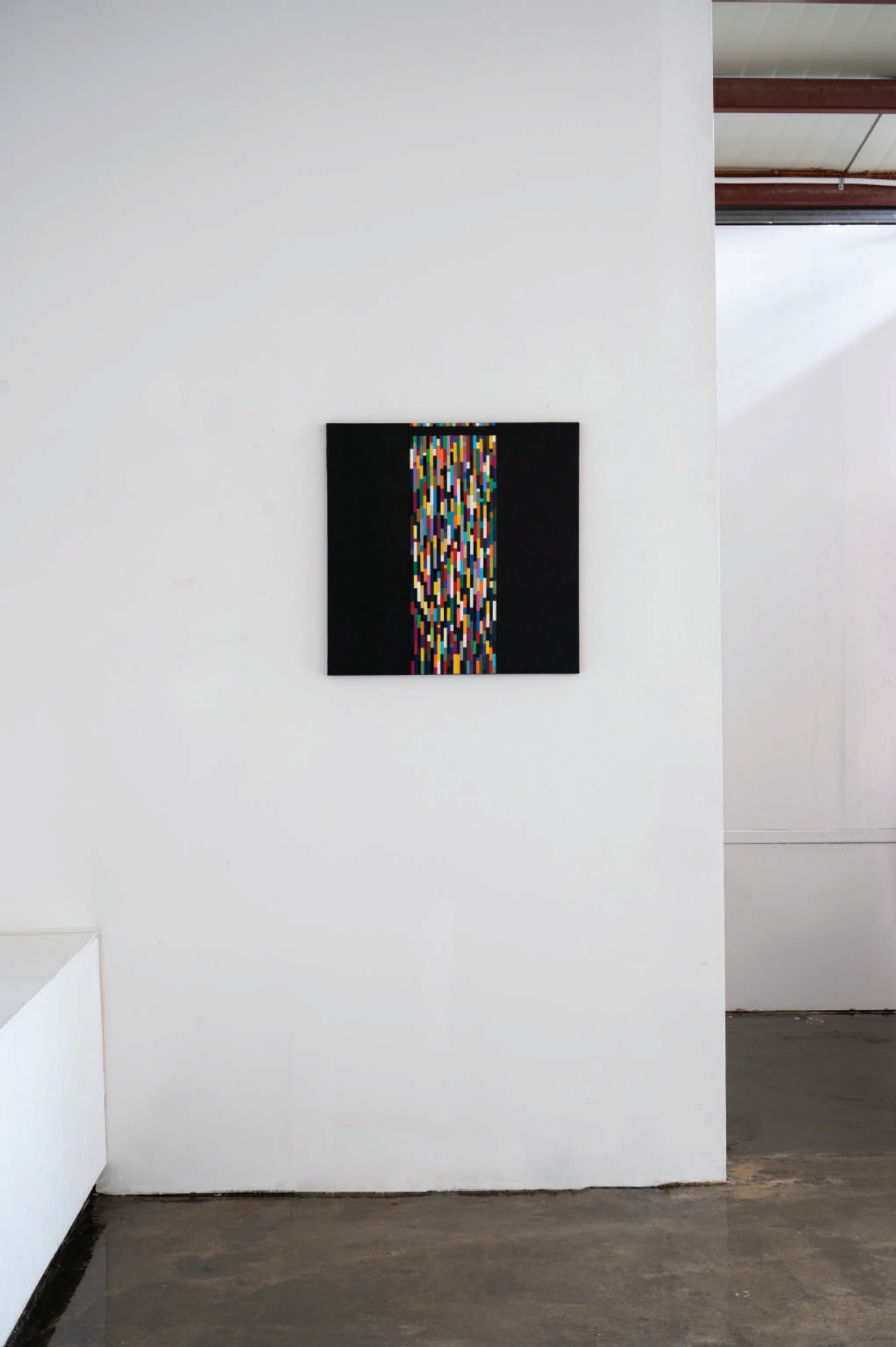
구성 2-1, 2022, 캔버스에 아크릴, 80.3x8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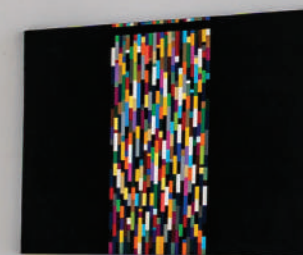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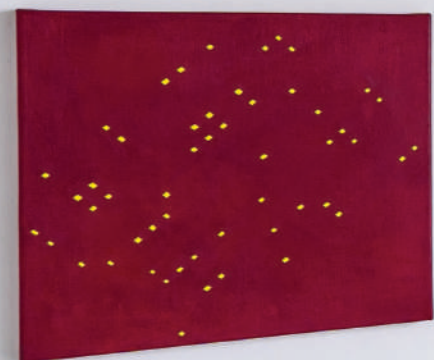
Composition 2-1, 2022, Acrylic on canvas, 80.3x80.3cm



조화,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및 레고, 20x20cm

Harmony, 2022, Colored lego brick and acrylic on canvas, 20x20cm







무제,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및 채색된 레고, 72.7x60.6cm (2개)
 Untitled, 2022, Colored lego brick and acrylic on canvas, 72.7x60.6cm (2ea)



조립,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및 채색된 레고, 72.7x60.6cm
 Assembly, 2022, Colored lego brick and acrylic on canvas, 72.7x60.6cm



조립,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및 채색된 레고, 160x132cm

Assembly, 2022, Colored lego brick and acrylic on canvas, 160x132cm





조립 조각, 2022, 판넬에 아크릴, 채색된 레고 블록, 50x50x94cm (4개)
Assemble sculpture, 2022, Acrylic on panel, colored lego brick, 50x50x94cm (4ea)



작가 약력

손원혁

1999 서울특별시 출생

개인전

2022 《조립학: 구성하고 조합하기》, CICA 미술관, 김포

2021 《Dream Land: Color》, 광명시민회관, 광명

단체전

2023 《Portrait》, CICA 미술관, 김포

2022 《진동새와 손편지》, 아트선재센터·예술청, 서울, 온라인

- 《VENOMOLD》, 의외의 조합, 서울

2021 《상대성 회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Over the structures》, CICA 미술관, 김포

2020 《만질 수 없는》, 문화역서울 284 RTO, 서울, 온라인

수상 및 지원

2023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인천문화재단

청년창작활성화지원사업 선정, 인천문화재단, 시작공간일부

2021 청년예술가지원사업 선정, 광명문화재단

활동 및 경력

2022 - OBSERVER: SCULPTURE (OS)

2021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 정회원

2019 안그래픽스 출판부 디자이너 | 인턴

참고 자료

2023 『CICA ART NOW 2023』, CICA PRESS

2022 『진동새와 손편지』, 작업실유령

2021 『만질 수 없는』, CA BOOKS

Biography

Wonhyuk Son

1999 Born in Seoul , South Korea

Solo Exhibition

2022 《assembly: compose and combine》, Czong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Museum, Gimpo

2021 《Dream Land: Color》, Gwangmyeong Civic Center, Gwangmyeong

Group Exhibitions

2023 《Portrait》, CICA Museum, Gimpo

2022 《Vibrating Birds and Handwritten Letter》, Art Sonje Center·S.A.P, Seoul, Online

- 《VENOMOLD》, Gallery OOOJH, Seoul

2021 《Relativity Circuit: Sustainability Report》, Dongduk art gallery, Seoul

- 《Over the structures》, CICA Museum, Gimpo

2020 《Contactless》,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Seoul, Online

Awards and Grants

2023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gran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ace ilbu grant

2021 Gwangmyeong Cultural Foundation grant

Division

2022 - OBSERVER: SCULPTURE (OS)

2021 -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 Regular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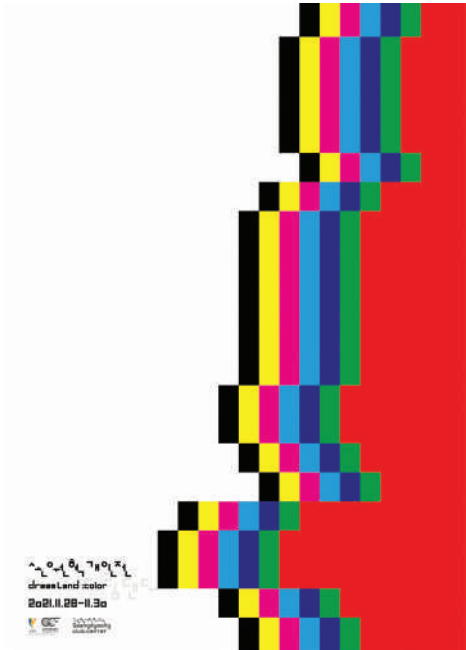
2019 AhnGraphics Publishers | Designer (intern)

References

2023 『CICA ART NOW 2023』, CICA PRESS

2022 『Vibrating Birds and Handwritten Letter.』, Workroom Specter

2021 『Contactless』, CA BOOKS



드림랜드: 색 Dream Land: Color

2021. 11. 28 - 11. 30

장소 광명시민회관

주최 · 주관 광명문화재단

기획 · 디자인 손원혁

작가 평론 정해선

사진 광명문화재단

후원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Venue Gwangmyeong Civ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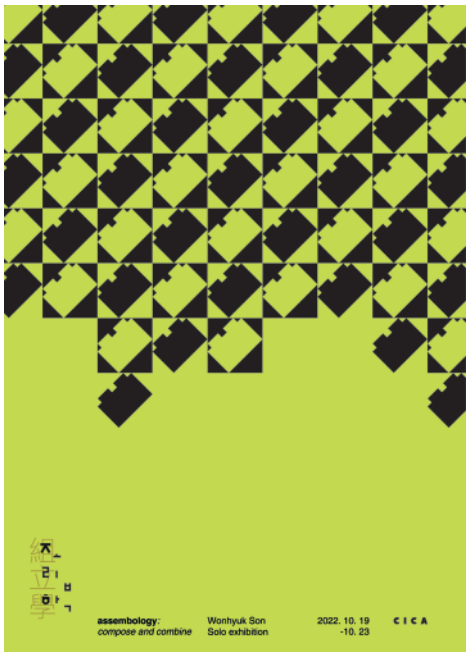
Organized by Gwangmyeong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urated by · Design Wonhyuk Son

Artist critique Haesun Chung

Photography Gwangmyeong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upported by Gwangmyeong City ·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조립학: 구성하고 조합하기 assembly: compose and combine

2022. 10. 19 - 10. 23

장소 CICA 미술관

주최 · 주관 CICA 미술관

디자인 손원혁

사진 안희상

도움 이상민

Venue CICA Museum

Organized by CICA Museum

Design by Wonhyuk Son

Photography Heesang Ahn

Thanks to Sangmin Lee

드림랜드 · 조립학 Dream Land · assemblage

www.wonhyukson.com

xg6033@gmail.com

초판 인쇄	2023년 11월	First Printing	November, 2023
디자인 · 편집	손원혁	Design · Editing	Wonhyuk Son
글	정해선	Texts by	Haesun Chung
사진	안희상, 광명문화재단	Photography	Heesang Ahn, Gwangmyeong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번역 · 감수	서울셀렉션	Translation	Seoul selection
도움	문지숙, 유성운	Thanks to	Jisook Moon, Sungwoon Yoo
인쇄	인타임	Printing	Intime

후원

Supported by



본 도서는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2023 청년창작활성화지원사업' 으로 선정되어 발간되었습니다.

© 2023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작가 및 글의 저자에
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허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행자
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일부를 전자적, 기계적, 복제적, 기록적 방법으
로 복사, 전송 및 배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합니다.

Copyrights © 202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
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
cal, photocopying or otherwise,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